

대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발행소	동지회관상부 931 노스 캠 스트리트 호노루, 하와이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비정호	President	Chung Kim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비행오수	1755	Subscription	\$10.00 per year
제작일	음력 5월 26일	Issue No.	1755
	금요일	Date	August 8, 1969: Fri.

10퍼센트 부가세 반년 연장

(의성은 8월4일발, 에이피) 하원은 4일, 소득세 10%부가세의 6개월간 연장을 237대 170표로 가결, 니슨대통령에 승인하였다. 상원은 같은 법안을 전주 통과하였다.

저·중 소득층에 감세

(의성은 8월5일발, 에이피) 하원세입위원회는 5일, 세계개혁법안에 종택 24억불에 도달하는 소득세감세조치안을 추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이안이 저·중소득층에 대한 과세율을 수정하는 것 으로, 1972년까지에는 대상자에 5%의 감세를 적용한다고한다. 하원내의 민주당연구회는 세계 개혁안을 검토, 넘수 4월 내지 1만3천불의 소득층에 해당하는 3백만대지 4백만의 납세자가 감세의 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하였었다. 월스하원세입위원회는 법안심의의 전략 위원회를 특별히 소집하고, 이감세조치안을 추가한 것이다.

하원 세제개혁안을 통과

(의성은 8월7일발, 에이피) 하원본회의는 7일 세제개혁안을 395대 30표로 가결하였다. 동안은 고소득자이 의의 만은 납세자에 대해서 적어도 5%의 감세를 약속하고 있다. 통안은 또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반년간 현방소득세부가세를 5%의 율로 연장할지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하원안은 상원에 회부되는데, 상원에서는 수주간에 걸친 토의가 예상되고 있다.

금년 말까지에 비에트남의 미군

12만5천명을 철병 낙수 대통령

(의성은 8월5일반, 봉동) 미정부측이 5일 판타나바데의 하안, 니슨대통령은 주남비에트남미군 군인을 또 5만명 철퇴시킨다는 발표를 8월후반에 하게 될 것이다. 통대통령은 또 이에이어 또 5만명의 철퇴를 10월에 일정에 올리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철퇴가 실시되면, 금년 말 까지에 12만5천명의 미군이 남아에트남으로부터 철퇴하게 된다.

니슨대통령은 아세아어행에 출발이 지원될 7월22일 원터 통한 참모본부의장과 협의하였다. 전부총애의 하면, 이협의의 전구, 니슨대통령과 원터의 장은 또 5만명의 철병이 현시점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후 또 협의의장의 협의사항과 니슨대통령의 세계여행의 도중에서의 견문을 보아, 양자는 단계철병의 일정으로서 이번가을 다시 5만명을 철퇴시킨다는 목표를 정하였다고 한다.

(제2면에 계속)

(제 1 면)



(제1편으로부터 계속)

니슨대통령은 6월6일 미드웨이도에서 구전·반·주남비에스널대통령과 회담하였을 때, 당면의 목표로서 2만5천명의 미군원회를 발표하였다. 이칠령은 이미 실시되었으며, 8월말까지에 남비에스널 장류의 미군은 51만5천명으로 사감된다. 소시동에의하면, 미군원회의 속도는 공한 속이 이에 호응하는 태도와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아노이가 남비에스널에 있어서서 그의 군대의 수를 사감하고, 또 이것을 라오스나 깁보지아에 응기지 않는다면, 더 많은 미군의 철퇴가 가능할 것이다.

문제의 한도한영적 미씨 씨의 심의

상원의 지지파의 승리

(의성은 8월7일밤, 에이피) 수개월간에 걸친 참부양론 끝에, 주류의 한도한영적 미씨 씨 회의는 6월 상원에서 간신히 승인되었다. 전개거리를 도모한 두개의 수정안을, 마가렛·스미스의 원안은 50대 50, 주파·아·으안은 51대 49로 각각 부결되었다. 그중 스미스안 채결시에 애구뉴부대통령은 반대의 일표를 던졌는데, 의사운영규칙에서는 찬성표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고되어있기 때문에, 부대통령의 일표가 업드라도 부결은 결정되어 있었다.

스미스안은 "폐이다, 컴퓨터들의 오소에 대해서 저출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에 동의원이 제출한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청원금지가 89대 11의 압도적다수로 부결된 것에 이어, 제출되었다. 주파·아·으안은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연구·개발은 인정하는데, 전개나 기지건설은 아지안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예상대로의 표수로 죽었다.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평택지안은 민주당의 구인은·엔다운, 공화당 존·윌리엄스의 양의원은 최종단계에서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지지로 돌아왔다. 6일의 채결은 영격미씨 회의 최종결정의 전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7일, 흐·마스·데인라이야의원(민주)제출의 "전개는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컴퓨터·폐이다 오수에 대해서, 미씨는 인정치안하는"라는 제3의 수정안도 70대 27로 부결되었다. 통안은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지지·반대파의 타협을 도모한 것인데, 경과로서는 상방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펜스 휴드민 주당원내총무는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법안에 관한 단 다수의 수정안의 제출에 의해, 13일의 휴회에 들어갈 때까지에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공화당의 반대파로 수정안의 부결 후에도 "나는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전개될 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라고 의견을 어디까지나 명백히 하고 있다.

정부측 반죽

백악관의 대변인은 6일의 채결 후 "니슨대통령은 이 결과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 레이드국무장관도 반죽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소련의 아쓰히로는 상원의 한도한영적 미씨 회의 지지를 비난하고, "미국상원은 군비경쟁의 신전개에 들어가 돈을 벌려는 군경기자의 소리를 떠돈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그러나 채결에 있어서서 이 점은, 미국내에서 점점 높아가고 있는 반전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부가하고 있다.

간란한 야전 병원은 비에스널 씨의 기습

(사이판 8월7일밤, 에이피) 미군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7일 미군기지의 어깨에는 가장 강한 방비를 자랑하고 있던 사이판 북동 195미일의 갑판만기지내의 육군야전병원과, 사이판시내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교가 해방전선군의 돌연 공격을 받았다. 피해는 양쪽이 다 맞다. 갑판만에서는 적은 병원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고, 상의병을 총으로 사격, 사망인 2명, 부상 57명 등을 내었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부상자 중 4명은 병원의 직원, 의사들은 모두가 상의병이었다. 해방전선군은 무게살이었다.

가장 강한 기지

간단한 예언에 따르는 이기자는 여태까지 가장 강한 기지도 인질되고, 66·67년의 주민에 걸리는 준준전대통령의 남비에스널봉문기는 이곳을 거점으로해서 일을 안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해방전선군의 대는 경계를 뚫고 철조망을 뚫고, 병원구내에 들어가 공격, 30분 남아지도 차위를 감추었다. 사이판에서는 소련지구의 영어학교 정면에 60마운트의 폭탄이 걸려 있었다. 폭탄은 미에스널인 8명이 사망, 이공군 23명을 포함하는 62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어학과는 남비에스널군인에 대한 영어교육의 시설인데, 부상자 중 아이군인도 3명 포함되어 있다. 건물의 3층이 파괴되고, 입점한 14호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폭행행위는 6월25일 이래의 일이다. 미군사령부는 또 미에스널 3기가 중앙고지에서 폭주되고, 1기가 추락한 공군에 100번 무기 1기를 손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7일 미에스널 3대명이 비에스널으로부터 철의 분위에 귀환하였다. 8일에는 제9보병사단 750명이 아와이에 향해서 귀환한다.

공산국 주아니아 시민들

부는 대통령을 대환영

(봉가페스토 8월2일밤, 에이피) 2월정오 지나, 미공군 1호기로 바이스란으로부터 주아니아에 들어간 니슨대통령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전에 대통령이 방문한 동남아메리카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이동산국의 친성을 마음으로부터 훌려나온 우호에 넘치고 있다. 오도페니 공항에는 수현명의 문중이 성호기와 운동하고 축하하였다. 공항으로부터 부가페스토의 중심가까지 12마일 되는 자동차 행진는, 행렬은 군중대문에 세번이나 서있었다. 현도에는 "니슨, 니슨"의 대합창이 있었다. 여러 가지 퀸성과 "미국, 주아니아 만세" 등의 소리도 있었다. 차우세스크 주아니아 국가평의회 의장과 나란히 짐용현은 차에 한 니슨대통령은 의식 양양한 태도로 차에서 내어, 현도 기가의 군중과 악수하였다. 군중이 주위에 물려와 대통령은 무언이나 넘어질뻔했다. 니슨대통령 부인은 차우세스크의 장부인과 단차에 타고, 현도에 키스를 보내고 있었는데, 부인들의 차는 짐용이 있는 차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이 흰색진이 전에 미리 현탁이되어 흰색군중이 나와있는 것에 놀랐을 것이다. 주아니아에서는 오후일의 노동시간은 오후 1시 15분까지인데, 이날에는 환영행사를 위해 어려시간 일찍이 종업하였다. 사람은 정부의 드레스로 출발되어 왔다. 그러나 군중의 열광이 마음에서 끌어나온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드레스 편이었지만 아드라도 군중이 걸어서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대통령의 공관전방문은, 24년 전 푸즈俚 대통령이 암화회담에 참가한 때 처음의 일이다.

부는 대통령 연설

공항에서 니슨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우선 최초로 부터 서로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자. 각국은 국내의 체제가 만이 떠나져 있더라도, 평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국가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류가 단에 조합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서로 이해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니슨대통령은 2일부터 3일째 걸쳐 차우세스크 의장과 회담, 3일 영국에서 월손수상과 회담한 후, 밤에 의성은에 귀환할 예정이다.

한국개헌안, 9월에 실의 개시

(동경 8월7일밤, 공동) 7일의 서울방송에 의하면, 한국여당인 민주공화당은 동일 대통령의 3년을 끝나오는 한법개정안을 122명의 선행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4편에 계속)



(제5편으로부터 계속)

122명의 분별은 민주공화당 108명, 여당에 가까운 경우의 11명, 야당신민당의 원증 개인을 지지한 5명으로 계단현실에서는 9일의 국회본회의에서 개시한 예정이다.

스에즈 방면 도격전 계속

(델아비부 8월6일밤, 에이피) 이스타일육군의 반도에의 하면, 스에즈운하에 따른 지역에 있어서 이스타일, 에탈현합 양군의 도격전은 야간 계속되어 이스타일군측은 병사 3명의 부상자를 냈으나 동지역에 있어서서의 양군의 전투는 3일 연속한 것이다.

동구제국과 관계 개선을 서둘 하망

(뉴욕 8월6일밤, 에이피) 방해중의 기사성자서 목수상은 6일 뉴욕에서 기자회견, "서독은 동구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을 빌어 통독에 관한 단기나타목표를 이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하였다. 국방본부에 우.안으로국방사무총장을 방문, 45분간 회담한 봄수상은, 서미린의 대로에 관한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고, "지금 아주 계획은 없다. 도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은 있으나, 주요한 해도에는 변함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문준의 회고록에서는 서독통령국은 2, 3일내에 미린을 문제로하는 회담을 조련에 정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肯네디 차동차사고, 지방검사 조사개시

(보스턴 8월6일밤, 에이피) 에드만트.데이스지방검사는 7월18일, 로베그나양이 의사간 차바우이티도에서의 에토워드.肯네디상원의 원의 차동차사고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에드가.타운 지방재판소의 보일 판사는 이경시 요청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는데, 데이스지방검사는 배사우셋주법정에 따랐어서 실시한다고 알고 있다. 통지방검사는 "관계있는 증인은 모다 소집한다"라고 말하였는데,肯네디의 원자신도 포함하는가는 아직 명백치 않다.

인사 소식

본향 서학서씨는 심장마비로 지난 어제동안 신고공, 본래에는 다리와 발등이 부어서 통파이 불편하여 금월2일에 원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는데, 신속히 원복입원이 회원회가하게 되기를 일반은 기대하고있다고한다.

미주 대성근처의 다농마에서 사시는 김숙경 노인께서는 본향에서 살고있는 본래명 양주보주길 김창원씨의 가족을 심방하고 금월 4일에 태양아역 자제 김창원씨댁에서 채택공이라고 한다.

동지회전을 처리위원회 보고

동지회전을 관리목적으로 작년 일년내 어려가지도 않을하여은 통지회전을 처리위원회에서는 전번에 18만불의 매매계약서를 의각시켰는데, 그후에 또 19만불의 매매계약서가 들어온 것을 드간은 신의 후에 회각하였다. 도지매매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드라도 적당하고 맞대한 금액을 얻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한다.

주말재정 보단

님복금	오랑	안학관	10.00	안경순	10.00
우보대금	오랑	최애나	10.00	김용배	10.00
적립금	오랑	안학관	2.00	안경순	2.00